<紀行文>

# 伽倻山海印寺

## ——八萬大藏經을 찾아서——

金 世 翊

大邱를 떠나 黃土길을 달리는 뻐스에서 내다 보이는 들에는 군데 군데 果樹園이 있는데 하이얀 사과 꽃이 한點 구름도 없는 파아란 하늘을 背景으로 비단폭 처럼 곱다.

木蓮꽃이나 배꽃이 흰줄을 알았어도 사과꽃이 또한 저렇게 눈부시게 흰 줄은 몰랐다.

어제 저녁 서울驛을 떠나 밤새도록 三等車에서 시달리고 나니 客苦도 적지 않았지만 한幅 그림으로 흐터져 있는 白色의 花心에 旅情 또한 지터지기만 한다.

圖書館學科 卒業班 學生 30餘名과 8軍圖書館에 있는 두 사람의 異國女人과 우리 一行은 八萬大藏經이 近 10世紀의 歲月을 지키고 있는 海東敎煌 伽倻山海印寺를 向하여 달리고 있다.

韓民族이 世界文化史上 자랑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눈을 世界印刷史에 돌릴 때 高麗 高宗14年 (1227年) (Johann Gutenberg의 印刷術發明은 1450年이 었다) 부터 10年間 鑄字로서 崔允儀選「古今詳定禮文」50卷을 印刷해낸 以後로 李朝에 와서 三代太宗恭定王 3年(1403年) 이른바 癸未字부터 始作하여 哲宗元年부터 同 14年에 鑄造한 雲峴宮 活字에 이르기까지 20回에 걸친 銅活字 印刷事業과 (그中 世宗 18年의 丙辰字는 鉛活字이고 顯宗9年戊申年의 活字는 鐵活字였지만……)「三災不到」 海印寺 藏經閣에 7百餘年의 風雪을 견디어 내며 고히 保存되어 있는 高麗大藏經 板木八萬枚 (實數는 81240枚)이야 말로 우리 民族의 크나큰 자랑이며 世界를 向하여 우리의 슬기로움을 외쳐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자랑도 우리 自身보다 外國學者나 뜻있는 人士들이 더 認定하고 있으며 中國의 高名한 學者인 張秀民은 그의 著書인「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의 到處에서 韓國民族의 高度의 文化性을 極口讚揚하고 있고 Carter나 McMautrie도 그렇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뻐스 안에서는 學生들의 노래 소리가 요란스럽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어떻고 한 옷을 입은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래 들도 그들의 옷과 같이 그렇다. 저렇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를 들어도 그들의 즐거움의 百分之一도 興겨워 지지 않는 것을 보면 世代의 差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곤 한다.

高靈을 지나서 길은 차차로 險해지고 뻐스는 山을 向하여 올라가는 듯 하다. 길 양쪽에 욱어진 樹木을 보니 5月이건만

아직 新綠이다. 이제 相當히 높이 올라온 듯하여 나무가지에는 봄의 餘韻을 아끼는지 다 남은 벚꽃이 두개 세개…… 길가에도 落花가 두개 세개…… 溪谷의 맑은 물에는 하늘도 비치고 山도 비치고 어쩌다 부는 바람에 물속에서 나무가지가 흔들리기도 한다.

海印寺入口에 到着하여 빠스에서 내리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살기 爲한 手段이기는 하겠지만 집집마다—거의 全部가 旅館이 아니면 記念品을 파는 商店들이지만— 페인트 칠을 해서 흡사 홋떡집 같다. 草家집이면 草家집대로 기우러지면 기우러진대로 自然의 風趣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大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洋式집도 아닌 집에다 페인트 칠을 하는 버릇을 배웠을까? 그것도 都市나 그 近處라면 또 견딜수 있겠지만 天下名山 海印寺入口가 이처럼 초라해야 하는지 아쉬운 마음이 간절하다. 얼마 前에 읽었던 美國의 한 作家의 「루폴타쥬」가 생각 난다. 그는 共產衛星國家들 即 中國本土「루—마니아」, 「체코스로바기아」, 「포랜—드」 여러나라를 訪問했는데 「루—마니아」에 가보니 같은 衛星國家인데도 그 特有한 푸라카—드니 宣傳 포스터—니 壁報 같은 것이 全然 거리에서 볼 수가 없었다. 新奇하게 생각한 그 美國作家는 어떤 「루—마니아」 市民에게 물었다.

「中共에 가보니 집집마다 거리마다 그 거창한 宣傳포스터—나 口號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왜 이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느냐?」 그 市民은 對答하기를 「우리國民과 中共國民의 文化感覺이 같으냐?」 고 反問하더라는 이야기다. 우리 國民은 옛날부터 그다지 잘 살지는 못했어도 멋을 아는 百姓이 었다. 文化感覺이 낮은 民族은 아니었다.

海印寺 境內에 들어 서자면 一柱門인가 하는 큰 大門을 지나야 한다. 그 門에는 크다란 懸板이 걸려 있는데 그것은 「伽倻山海印寺」라고 쓴 海崗先生의 글씨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海崗先生은 우리나라 名筆의 한사람으로 이름높은 분이다. 그런데 不滿스러운 것은 海崗先生의 글씨는 너무 흔한것 같다. 내가 가본 寺刹이나 其外 어떤 곳이건 海崗先生의 글씨가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 내가 少年時節을 보내던 咸鏡南道 洪原의 鳥來라는 人家 約 50戶의 보잘것 없는 寒村에 옛날 書堂으로 쓰던 조고마한 기와집 大門에 걸려 있던 「鏡湖齊」란 懸板에도 海崗이라 쓰여져 있었던것 같이 記憶된다. 그런것을 보면 海崗先生은 金笠못지않게 八道江山을 돌아다닌 放浪客이 었나보다.

海崗은 金剛山九龍瀑布가 떨어지는 바위에다 彌勒佛?이라 크게 쓰고 그것을 彫刻해 놓은 것이 있다. 그 글씨가 얼마나 컷던지 한 획사이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한다. 春園先生이 그것을 보고 「海崗은 名筆 이기는 하나 俗된 罪人이다」라고 痛烈히 非難한 글을 본적이 있다. 나는 海崗先生을 非難할 意圖는 없지만 海印寺一柱門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잠겼다.

案內라는 腕章을 두른 老人은 慶尙道사투리로 流暢하게 說明을 하는데 퍽 Fiction이 많다. Fiction이 많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老人의 이야기를 熱心히 노—트하는 착한 學生들도 있고 그런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熱心히 寫眞만 찍는 學生도 있고 同行한 金髮의 異國女性은 또 熱心히 원더풀만 連發하고

있다.

참 모두 熱心이다.

風水는 아니지만 海印寺가 자리잡고 있는 周圍의 山은 果然 名山이요 아름답기 그지없다. 大寂光殿 앞에 서서 바라보니 安定과 孤高와 風趣가 깃들어 있어 무슨 靈感 같은 것을 풍겨 주는듯 하다. 가을이 되어 丹楓이 빨갛게 탈 무렵이면 더욱 볼품이 있을 게다. 그러나 海印寺自體에는 不滿이 있다.

내 느낌으로서는 建物로서의 海印寺는 퍽 散慢한 寺刹인것 같다. 佛國寺의 美도 없고 浮石寺의 멋도 없고 通度寺의 「심메트리」도 없는 洗練되지 못한 建築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대로 좋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지만……

大寂光殿 뒤에 있는 二棟으로 된 藏經閣에는 國寶 八萬大藏經이 整然하게 分類配列되어 있다. 八萬卷의 藏書를 整理한다는 것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건만 옛날 우리의 祖上들은 八萬을 넘는 板木을 天字文에 依하여 類別하여 그것을 整然하게 書架에 配列한 솜씨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우리의 興味를 끄는 것은 藏經閣建物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建築美도 가추지 못한 平凡한 것이며, 다만 倉庫로서 지은 것이지만 역시 國寶의 하나이다. 이 大藏經版木 八萬餘枚와 其他雜板이 七百餘年동안 거의 原型대로 保存되어 있는 것은 藏經閣이 通風이 잘 되고 濕氣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即 圖書館建築으로서의 重要한 條件을 具備하고 있기때문이다. 오늘날 現代建築의 技術을 다하여 짓는 서울의 큰 圖書館들의 書庫가 거의 例外없이 여름 철이면 濕氣가 차서 册이 썩어 가는 것과 比較할 때 이 보잘것 없는 建物이 國寶로 指定된 것은 當然한 일이다. 事實 大藏經 八萬枚가 어떻다는 것 보다 우리 圖書館人으로서는 圖書館으로서의 이러한 點에 더 많은 關心이 集中되는 것이다. (이 建物은 世祖 成宗 때 重修改造된 것으로 高麗時代의 建築物로서의 價値는 없다) 또 外國 文獻에는 海印寺 圖書館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海印寺 圖書館이라면 異常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圖書館史에서 古代의 圖書館에는 粘土版(Clay tablets)이 많이 所藏되었음을 볼 때 海印寺圖書館이라 함은 또한 當然한 말이다.

부슬 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庵子를 두루 求景하고 旅館으로 돌아오니 어두움이 닥아온다. 疲困한 몸을 窓가에 기대니 밤은 자꾸만 깊어가고 지금은 고요가 깃든 海印寺에는 비소리만이 속삭이듯 들릴뿐이다.

山深 夜深 客愁深.

새벽에 海印寺를 떠나 다시 大邱로 돌아 왔다. 通度寺로 가는 길이다. 大邱에서 汽車를 타고 釜山으로 가는 沿道에는 보리밭이 파랗게 鬱농아있고 그 가운데를 洛東江 七百里가 太古의 꿈을 간직한 채 悠悠히 흐르고 있다.

(梨花女大圖書館學科專任講師)

## 會 員 諸 位

個人 會員으로 現職에 있지 않는분이 계시면 事務局으로 連絡하시기 바랍니다.